

왔다네, 정말로! 국힙 원탑 이찬혁의 컴백

글. 한수현 대구MBC 방송인프라부 사원



요즘 내 출퇴근길 플레이리스트를 가득 채우고 있는 이름이 있다. 바로 솔로 아티스트로 두 번째 정규 앨범을 낸 이찬혁이다. 우연히 유튜브에서 MBC <김이나의 별밤 콘서트 in studio> 라이브 컴백 무대를 본 순간, (나름 불교 신자이지만) 살짝 Holy 한 느낌까지 받았다면 호들갑일까? 그의 무대는 마음을 벅차오르게 하고 묘한 치유감을 남긴다. 그 여운에 이끌려 밤마다 반복 재생할 수밖에 없던 그의 무대들을 이 자리를 빌려 함께 나누고 싶다.

지디병에서 솔로 아티스트 이찬혁이 되기까지

악동뮤지션 시절부터 천재적 작사·작곡으로 주목받았지만, 그의 보컬은 듀오라는 틀 안에서 동생 수현의 맑은 음색 뒤에 가려져 있었다. 그러나 앨범을 거듭하며 개성 넘치는 바이브를 차근차근 쌓아가더니, 솔로로 변신하며 비로소 자신만의 보컬과 세계관을 완성했다.

첫 솔로 앨범 <ERROR>(2022)는 ‘나의 죽음’을 주제로 <파노라마>, <Time! Stop!>, <장례희망> 등의 곡들을 유기적인 서사를 엮어냈다. 행위예술과 비디오 아트를 넘나드는 파격적 퍼포먼스, 실험적 사운드와 철학적 가사들은 ‘악무의 이찬혁’이 아닌 ‘솔로 아티스트 이찬혁’의 존재감을 한층 드러내기에 충분했다.

이어 약 3년 뒤 발표된 두 번째 앨범 <EROS>(2025)는 시선을 ‘타인의 죽음’으로 확장했다. 사랑의 결핍과 상실, 분노를 탐구하며 삶의 귀함에서 비롯한 타인과 세상에 대한 연민과 회복의 메시지를 전한다. <멸종위기사랑>, <Eve>, <빛나는 세상> 등의 곡들은 슬픈 가사 속에서도 오히려 희망과 밝음을 품어 “사람을 살리는 음악을 하고 싶다.”는 그의 다짐이 결코 빈말이 아님을 증명한다. 특히 이번 2집은 가스펠 풍의 코러스와 탄탄한 밴드 사운드, 촌스럽지 않은 레트로 감성을 더해 ‘듣기만 하는 음악’을 넘어 ‘보면서 듣는 종합 예술’의 경지를 보여준다. 뮤직비디오와 무대를 보면 마이클 잭슨과 프린스를 연상케 하는 거장들의 아우라까지 스며 있는 듯하다.



이찬혁 1집 'ERROR' 앨범



이찬혁 2집 'EROS' 앨범

물론 그의 행보가 늘 순탄했던 것은 아니다. 파격적인 콘셉트와 기행으로 한때는 ‘지디병’이라는 별명이 붙고 “찬혁이 하고 싶은 거 그만해”라는 밈이 따라다니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다. 꾸준히 음악적 깊이를 넓히고, 실험적인 무대를 통해 자신의 세계를 증명해 왔다. 이제 그의 음악성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주저 없이 외친다.



무대를 하나의 작품으로

제45회 청룡영화상 오프닝 무대 (KBS)

이찬혁의 노래는 라이브에서 제대로 빛을 발한다. 그는 공연을 단순히 곡 홍보가 아닌 하나의 예술로 확장해 왔다. 아직 보지 못했다면 한 번쯤은 꼭 시청해보길 바라는 무대들을 소개해본다.

첫 솔로 앨범 수록곡 <파노라마>와 <장례희망>을 엮어 선보인 축하 무대는 방송을 넘어 예술에 가까운 충격을 남겼다. 차려입은 배우들 앞에서 “이렇게 죽을 순 없어 / 버킷리스트 다 해 봐야 해!”를 외치며 삼페인이 흘러넘치도록 춤추고 노래하다가, 모두의 축하 속에 관속으로 들어가 죽음을 맞이하는 연출은 단순한 축하 무대를 넘어서 카타르시스를 주는 행위예술 그 자체였다. 이 무대를 기점으로 그는 곡·퍼포먼스·연출·미디어를 하나로 묶어낸 자신만의 스타일을 대중에게 확실히 각인시켰다.



열린음악회 <멸종위기사랑> 최초 선공개 무대 (KBS)

전통적인 음악 프로그램 <열린음악회>에서 신곡을 최초 공개했다는 점부터 신선했다. <뮤직뱅크>나 <음악중심> 같은 아이돌 중심 무대가 아닌 곳에서, 세션과 대규모 코러스가 함께 만든 장면은 웅장하면서도 자유분방했다. 사랑의 종말론을 노래하면서 이렇게 신나고 행복해 보일 수 있을까!

“왔다네, 정말로! / 아무도 안 믿었던 / 사랑의, 종말론!” 흥겨운 가스펠 리듬 위에 울려 퍼진 이 가사는 자조적이면서도 역설적인 위로처럼 다가왔고, 어느새 이 문장은 ‘사랑해! 정말로!’라는 고백처럼 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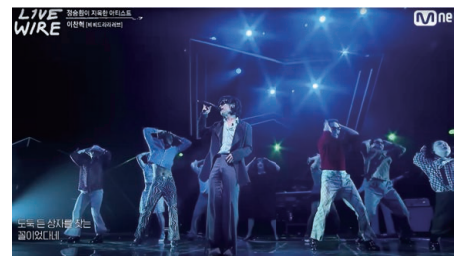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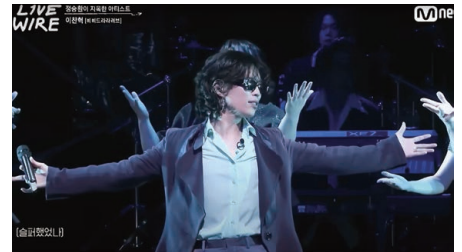
<김이나의 별밤 콘서트 in studio> 보이는 라디오 무대 (MBC)

일반적으로 라디오 라이브는 소박한 어쿠스틱 무대를 떠올리기 마련인데, 이찬혁은 달랐다. 코러스와 세션을 총출동시켜 라디오 스튜디오를 그대로 콘서트장으로 바꿔놓았다. 샤워가운 같은 의상을 입고 은은한 조명 아래 나른하게, 때로는 폭발적으로 <Time! Stop!>, <비비드라라러브>, <Eve>, <TV Show>, <마지막 인사> 등 1집과 2집에서 고른 8곡을 연달아 선보였다. 그날의 조명과 온도, 습도가 피부로 전해지는 듯한 몰입감이 압도적인 무대였다.



'LIVE WIRE'의 <비비드라라러브> 무대 (Mnet)

'LIVE WIRE'에서 최초 공개된 <비비드라라러브> 무대는 뮤지컬 배우들이 백댄서로 함께했고, 왜소증 배우도 출연해 퍼포먼스에 힘을 보탰다. 단순히 '무대'가 아니라 하나의 '뮤지컬 쇼'처럼 꾸며진 이 장면은, 성별과 연령을 불문한 다양성과 예술성을 동시에 담아내며 관객들에게 깊은 감동을 전했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위대한 쇼맨을 보는 듯 했다."고 표현하기도 했다. 다시 한번 그의 연출력이 빛난, 완성도 높은 한 편의 작품 같았다.



음악의 울림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기를

몇 년 전 "어느 새부터 힙합은 안 멋져—" 한마디로 힙합 씬을 뒤집어놓으며 국힙 원탑에 등극한 이찬혁은, 최근 3년 만의 <쇼미더머니 12> 부활 소식에 맞춰 다시 디스전의 중심에 섰다. 오래전 그 한마디만으로도 그의 존재감이 얼마나 강력한지 짐작할 수 있다.



그가 만든 방송 무대 영상에는 높은 조회수만큼이나 수천 개의 댓글이 달리는데, 단순한 감탄을 넘어 각자의 사연과 철학적 해석이 촘촘히 쌓여 있다. 누군가는 자신의 상실을, 누군가는 새로운 시작으로 고백하며 또 다른 이의 마음을 흔든다. 한 무대에서 시작된 감정이 관객과 시청자의 이야기로 확장될 때, 무대가 지닌 힘이 얼마나 큰지 새삼 느끼게 된다. 그래서 이런 공연이 더 많이 이어져 음악의 울림이 더 많은 사람에게 닿기를 바란다.

TV와 유튜브 화면만으로도 이렇게 큰 울림을 주는데, 현장에서 온전히 마주할 그 압도적 에너지는 과연 얼마나 막강할까. 언젠가 직접 그의 무대를 눈앞에서 경험하며, 그 뜨거운 순간을 마음껏 호흡할 날을 기대해본다!